

행복해지는 연습

췌갑 트통과(티베트 승려)

〈7·끝〉공의 진정한 의미

“온전히 외로울 때 자기 스스로를 돕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

프라즈나는 삶의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다. 프라즈나를 통해 우리는 공(空)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공의 발견은 매우 강렬하면서도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한다. 프라즈나는 공의 체험을 열어 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코너에 몰리는 방식이다. 당신은 '이것' 안쪽으로 물리고 또 물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다만 벽을 뚫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벽을 공한 것으로, 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테니까 말이다.

공은 지성보다는 명상적 체험에 더 가깝다. 공은 자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으로 불린다. 공의 이해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이 당신에게 온다는 것이 맞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지성(명료상과 예리함)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켰을 때 그에게도 공이라는 비존재를 보고 동시에 공의 충만함을 볼 수 있도록 일종의 토대를 준다.

당신은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라즈나가 배어내는 작업을 한 후에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어디있어?” 많은 것이 남아 있다. 잘라내는 과정 역시 폭로되어야 한다. 여행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과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까지 말이다. 공은 진정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다. 일단 당신에게 토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제로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공중에 떠있게 된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의 목소리 자체가 공이 된다.

이제 당신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다. 자신을 구하려는 당신의 행동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배어내는 작업의 결과이다.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이 잘라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토대가 완전히 잘라나갔다. 그런 다음에는 자르는 과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작업도 전혀 없다.

우리는 일반적 원리로서 내가 이전에 언급한 주제와 객체의 논리와 그들의 이원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원성은 두 개의 개별적 존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주제와 객체는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이다. 하나 안에 벽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이원성을 만든다.

공은 단지 '이것'의 팽창이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 이 벽을 밀어내고, "단지" 이 팽창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을지 모른다. "이것" '이것' 만이 존재한 다며, 그것은 에고 없음(무아)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같음을 일으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에고와 에고 없음(무아)은 '이것'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은 에고는 '저것' 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 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에고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 이나 '여기' 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더욱 토대가 없게 된다.

당신은 토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처음에 이것은 겁나는 일이다. 나로파의 삶에서도 그와 유사한 순간이 있었다. 그는 승원에서 8년간 수련을 했고, 토론을 통해 구두시험에 합격했으며, 마침내 나란다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그 시점에서 그에게 한 추한 여인의 비전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갑작스런 충격,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이 여성은 공의 상징인 바즈라요기나였다. 공의 갑작스런 충격은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그가 읽고 있던 책 위에 드리워졌다. 이것은 공의 공포스런 체험이었다. 수도없이 많은 자음과 벵을 겪은 후에, 너무나도 많은 프라즈나를 체험한 후에 마침내 당신은 구루를 찾을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프라즈나, 즉 지성의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 자체가 또한 지성의 한 형태, 최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추한 여인의 지성은 당시 나로파의 지성보다 더욱 예리하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는 더 많은 자비의 표현인 자각이 있다. 부드러움 또는 비공격성의 양상은 이해력이 매우 뛰어나게 되지만 날카로운 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행동 중인 프라즈나의 방식으로 예리하지는 않다. 그것은 말하자면 존재 상태로서의 프라즈나의 방식으로 예리하다.

물론 사건은 이처럼 선행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프라즈나의 체험과 공의 섬광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토대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너무나 무섭고도 두렵고도 갑작스러운 토대가 없는 상태를 훔쳐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땅에 매달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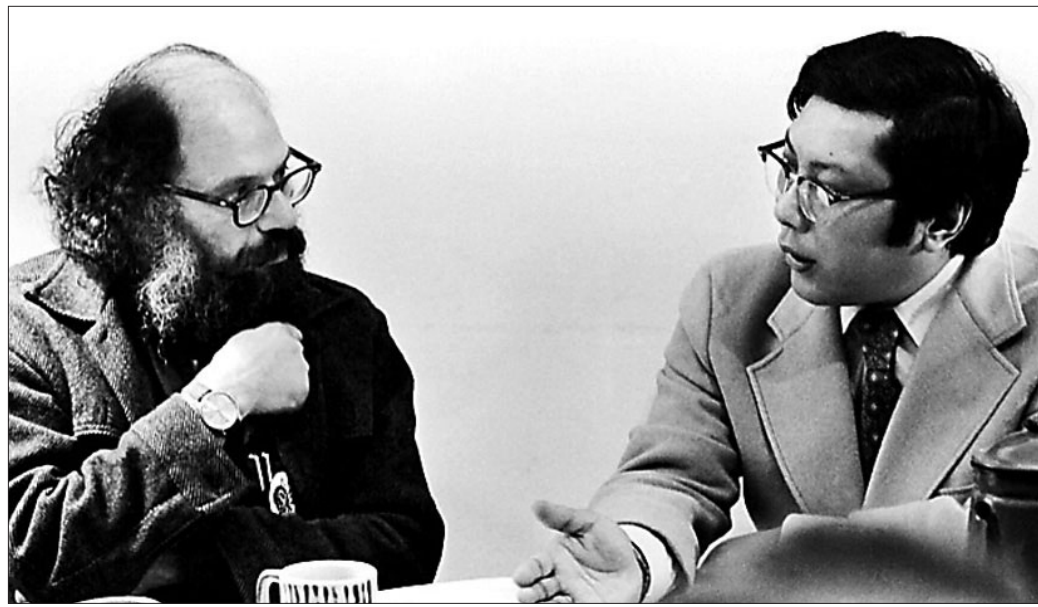
이런 일은 우리에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영적 수행길에서 일어나는 여정을 자각하고 있다면 말이다. 당신은 공포에 질리거나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의 섬광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은 또한 여성 원리로, 모든 부처들의 배우자존으로 묘사될 수 있다. 프라즈나도 여성 원리로,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낳는 여성, 즉 모든 부처들의 어머니로 묘사될 수 있다. 이 개념은 바로 그녀 프라즈나에 의해 시작됐다.

하지만 부처들로 하여금 말을 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것은 공이다.

왜냐 하면 공에는 많은 여유 공간과 열림과 토대 없음이 있기 때문이다.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토대 위에 서있지 않다. 그래서 소통은 아주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나로파가 추한 여인을 만난 후의 노래에서 각 행동은 중생적 삶의 속성들과 연관돼 있다. 그 노래는 나로파의 간헐적 의식이 예리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공의 실재를 볼 수 없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는 충만한 프라즈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그는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남아 있다. 공이 없는 프



비트문동을 이끌었던 알렌 킨스버그(왼쪽)와 대화를 나누는 췌갑 트통과.

공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무런 체험 담지 않은 자각. 또한 동시에 '텅 빈' 의미 자신을 현상계와 동일시하는 것

라즈나는 팔이 없는 몸과 같다. 팔 없는 몸이 암벽을 오르려는 것과는 다르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공의 진짜 정의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 또는 아무런 체험을 담지 않은 자각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딱 찬 동시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저 에너지로 본 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탁자나 의자를 뚫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탁자로 의자로 바위로 하늘로 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현상계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존재는 그 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거나 유동적이다. 단일성, 동일감이 존재한다. 동시에 차이감도 존재한다.

공의 체험

학생1: 공은 우리가 현상계와 동일화한다는 점에서 정념(마음챙김)과 같습니까?

트통과: 아니요. 공이 마음챙김의 수행과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대체로 당신이 '그것' 즉 탁자나 의자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당신은 선동자예요. 하지만 공의 경우 어느 정도는 탁자와 의자가 선동자가 되지요. 그것들이 상기시켜 주는 자각이 되는 거지요.

학생1: 저는 마음챙김이 그저 사물을 잊는 그대로 보는 거라 생각해요. 관찰은 하지만 성찰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챙김과 공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트통과: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미묘한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원초 선동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즉 당신은 현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챙김에 대해 생각합니다. 반면 공은 보편적 편재성을 가졌어요. 어디에나 자각이 있지요.

학생2: 공에서 자각은 있지만 체험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트통과: 체험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집어 들고 입에 넣은 다음, 그것을 씹고 삼킵니다. 우리가 체험을 슬로모션으로 본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물론 개개의 행위가 매우 빨리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슬로모션으로 보면 그런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런 체험의 내용은 개인의 삶에 맞게 변형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에서는 아무런 변형이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학생3: 공의 체험에서 토대가 없다면, 무의식적인 내적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극히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진다는 뜻인가요?

트통과: 최초의 체험은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문제와 고뇌를 감소시켜 가는 중이니까 새롭게 보일 거지요. 하지만 일단 공 안에서 어른이 된 후에는, 즉 프로그 된 후에는 사물을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고 아주 평범한 것, 그렇지만 세세함이 가득한 것으로 봅니다. 평범한 사물은 세세함으로 가득하지요. 만약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가진 새로움 때문이 아니라 평범함 때문입니다.

학생3: 그렇다면 신기한 일은 없군요.

트통과: 세세함은 매우 신기합니다. 사물의 세부를 그 에너지 측면으로 온전히 보는 것에는 마하무드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 명상적 양상입니다.

학생4: 공 안에 과정도 없고 체험자도 없다면 가르침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가르침을 과정에서의 기준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공에 서는 그것마저 녹아 사라질 것 같거든요.

트통과: 이곳이 바로 가르침이 당신 자신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가르침과 온전히 동일화됩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 있는 가르침이 되지요. 당신 자신이 살아 있는 다르마가 됩니다. 이 지점부터 금강승의 최고 차원까지는 그렇습니다. 가르침과의 심 없는 동일화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점점 더 당신 몸의 일부가 되고 뇌의 일부가 되고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가르침에 동일화될수록 기준점은 더욱 당신에게 심 없이 상기시켜 주는 자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침과 동일화됐기 때문에 자각이 당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학생5: 린포체께서는 자주 고통을 말씀하셨고, 수행길이 외로운 여행길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공의 체험이 최초의 고통 체험 같은데요.

트통과: 그래요. 토대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힘들어요. '엄연한 사실' 또는 '냉정한 현실' 이라는 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학생6: 이 시점에서 수행은 좀 더 여유로워지나요,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나요?

트통과: 매우 그렇지요. 당신이 좀더 가르침과 동일화되면 수행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공의 차원에서는 수행이 매우 유기적이고 평범하고 순발적인 것이 됩니다.

학생7: 선(禪)에서의 견성 체험은 공의 체험인가요?

트통과: 그렇지요. 공의 체험의 정점이 견성이라고 생각해요. 공의 정상, 공의 진정한 체험. 논리는 다 사라져버리지요. 더 이상 논리도 없고 논리의 기준점도 없어요. 당신은 완전히 무(無)에, 또는 충만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 체험이고 문득 홀로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8: 제게 공은 늘 거대한 외로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린포체께서는 그것이 충만함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지요?

트통과: 온전히 외로울 때 당신은 자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안에서는 편안해지는 거지요. 당신은 주변의 온갖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의 원리와 동일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나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aewol' (태울)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aikamsa' (백암역리원) and a 'Free Public Lecture' (무료공개강좌) section.